

보도시점 2026. 10. 29.(목) 13:00 배포 2026. 10. 29.(목) 06:00

학교·노인복지시설·군부대 대상 ‘국산 밀·콩 DAY’ 추진으로 국산 밀·콩 소비 확산

- 농식품부, ‘국산 밀·콩 DAY’ 선정 학교 방문을 통해 국산 밀·콩 우수성 전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중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국산 밀·콩 소비 확대를 위한 ‘2026년 국산 밀·콩 DAY’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성중학교는 학생들에게 국산 밀·콩 제품을 활용한 급식메뉴(▲국산밀 미트볼 치즈퐁듀 ▲국산콩 연두부)를 선보이며 영양학적 가치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농식품부 밀·콩 담당 주무부서인 전략작물육성팀(팀장 김민호) 관계자들 역시 국산 밀·콩으로 만든 간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전략작물 홍보에 앞장섰다.

‘국산 밀·콩 DAY’는 단체급식 등 대량 수요처 중심으로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2022년부터 시작된 소비캠페인으로, 올해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43개소, 노인복지시설 9개소, 군부대 4개소 등 총 56개소가 선정되어 ‘국산 밀·콩 DAY’를 운영 중에 있다. 캠페인 종료 후에도 급식 현장에서 국산 밀·콩 소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대한영양사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추진하여 실수요자와의 연계도 강화하였다.

선정된 기관에는 국산 밀·콩을 활용한 식단 편성을 지원하고, 영양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학생들에게는 국산 밀·콩 식재료 꾸러미와 요리법을 함께 제공하여 학교에서의 소비가 가정까지 연계되어 국산 밀·콩을 활용한 제품이 일상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

농식품부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국산 밀과 콩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식량안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략작물”이라며, “앞으로도 단체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처를 발굴하고, 우리 밀과 콩이 국민 식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2026년 국산 밀·콩 DAY’ 개요

2. ‘2026년 국산 밀·콩 DAY’ 참여기관 배식현장 사진(별송)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	책임자	팀 장	김민호 (044-201-2911)
		담당자	서기관	서은희 (044-201-2912)



□ 사업 목적

- 대형급식소(학교·군대·노인복지시설 등) 대상 국산 밀·콩 식재료비 지원, 가정 연계 홍보, 메뉴 개발을 통한 가정 내 소비 유도 및 접근성 제고

□ 사업 대상

- 단체급식 56개소(학교 43개소, 군부대 4개소, 노인복지시설 9개소)

□ 사업 내용

- (식재료비 지원) 국산 밀·콩 식단 편성 시 제품 구입비 일부(국산 원료 전환에 따른 원가상승분) 지원(기관별 최대 4식)
- (교육·캠페인) 식생활 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한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배포 및 국산 밀·콩 체험용 제품 샘플 배포, 활동 우수사례 발굴
- (가정연계 프로그램) 국산 밀·콩 가치와 레시피가 담긴 가정교육 콘텐츠 개발·배포, 국산 밀·콩 제품 꾸러미 및 전용 요리법 제공
- (메뉴 개발) 대용량 조리에 적합한 국산 밀·콩 레시피 개발 및 배부
-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홈페이지 게시 등 레시피 배포

<국산 밀·콩 DAY 운영 사례>

